

## 편집실에서

〔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선전은 우리 국민에게 진한 감동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넘어, 나아가 국격 상승의 발판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올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 경주하는 2010년 한국외교의 도약을 기대하며 『외교』 제93호 편집후기 시작 합니다.〕

〔 이번 『외교』 제93호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특별기고 “2010년 한국외교 과제”와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G20 서울 정상회의”, 박홍순 선문대 국제평화대학장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민동석 전 한·미 FTA 농업협상대표의 “한·미 FTA 비준 왜 필요한가”, 마영삼 주 이스라엘 대사의 “한·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협력”, 김종용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설립 및 활동현황”, 정찬워 전 주 나고야총영사의 “재일 한국인의 의식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 그리고 박창남 회원, 정해현 회원, 김승호 회원, 김종록 회원 등 4편의

회원칼럼과, 신간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투자진흥을 위한 외교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당 협회가 발간한 “우리 중소기업, 세계로 간다”(박영사, 334쪽)를 소개하였습니다.

〔 『외교』 제93호 편집은 홍순영 회장, 현희강 부회장 겸 편집인, 문병록, 박창일, 사부성, 유석렬, 이워영, 정석권, 황용식 편집위원이 참여해 주셨으며, 특히 이번 호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국장 이윤)에 감사드립니다.〕

제간 외교  
2010년 제93호

발행 · 2010년 4월 1일

발행인 · 홍 순 영  
편집인 · 현 희 강  
발행소 · (사)한국외교협회  
인쇄소 · (주)마스터상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80  
Tel : 585-6475(편집실)  
Fax : 585-6204  
E-mail : editorial@kcfr.or.kr  
http://www.kcfr.or.kr